

www.lak.co.kr



9 771227 266005 02
ISSN 1227-2663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수변생태·여가문화 공간 설계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설계

붓으로 기록한 도시의 시간

'아카이브 오브 더 선' 전, 제이슨함

글 윤정훈 기자
자료제공 제이슨함

오래되어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외피가 떨어져 나간 건물, 녹슨 철문과 낙서로 가득한 벽,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노점상 앞을 활보하는 사람들. 셰이크 은디아예(Cheikh Ndiaye)가 붓으로 포착한 세네갈의 풍경은 이방인들이 막연하게 떠올리는 아프리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도시와 건물을 사회적 기록으로 간주해 그 속에 담긴 사람과 문화를 예술로 기록,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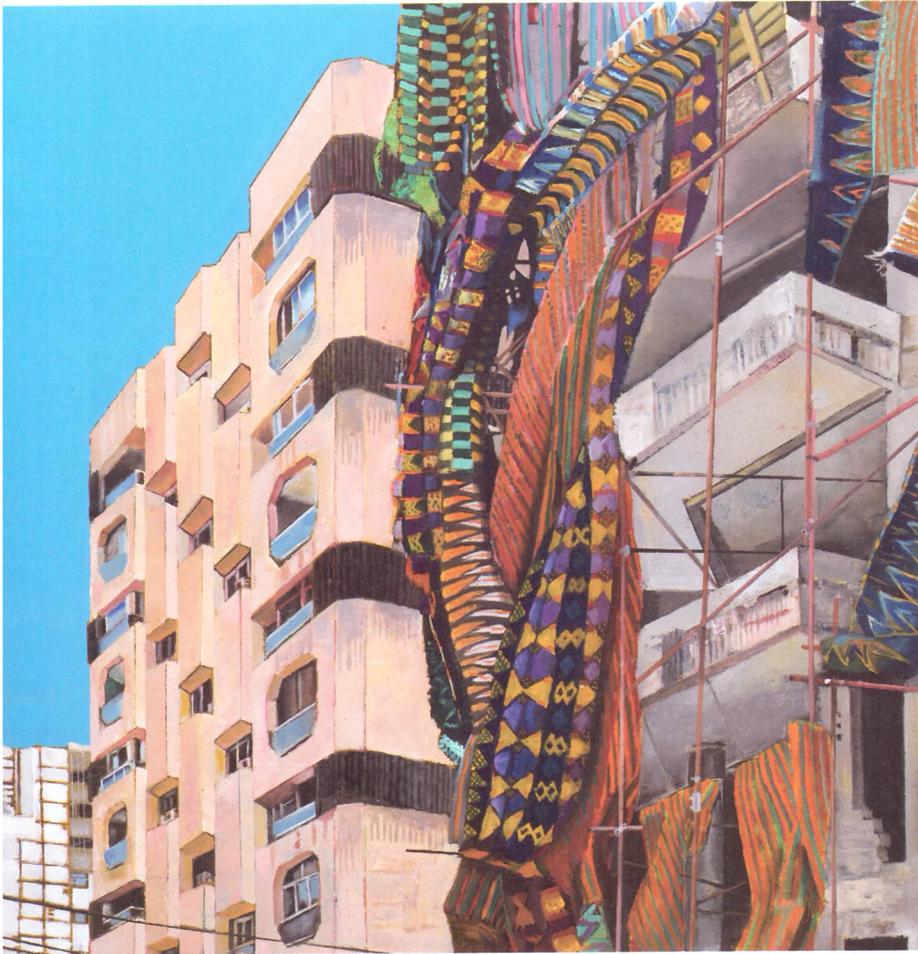
세네갈 출신 작가 셰이크 은디아예의 개인전 '아카이브 오브 더 선(Archives of the Sun)'이 성북동 갤러리 제이슨함(Jason Haam)에서 지난 1월 28일까지 열렸다. 함윤철 대표(제이슨함)는 2018년 폰다지오네 프라다(Fondazione Prada) 그룹전을 통해 그의 작품을 만나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작가가 제안한 전시 제목은 세네

갈의 일간지인 「르 소레유(Le Soleil(영어로 The Sun))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후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급격한 변화를 맞은 세네갈의 일상을 기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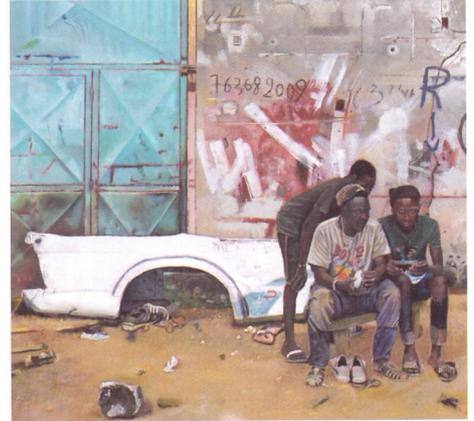
세네갈은 19세기부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 1960년에 독립했다. 독립 직후의 다카르(Dakar(세네갈의 수도))에서 태어난 은디아예는 불안한 사회·정치적 기류와 급속한 현대화의 여파를 몸소 경험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960~1970년대는 다카르에 다양한 근현대식 건물과 공공 공간이 들어섰던 시기였다. 하지만 경제 악화와 정부 결정으로 인해 영화관이나 공원 등의 공간이 폐쇄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개인 사업 용도로 전환됐다. 오늘날의 다카르에는 이 같은 독립 이후 세네갈의 열정, 이후 찾아온 변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은디아예는 그중 오래된 건물에 주목하는데, 건물의 낡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그 공간의 옛 쓰임과 오늘날의 새로운 쓰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근대식 극장은 은디아예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다. 그림 속 극장을 잘 들여다보면, 영화 상영이라는 본래 목적은 잃었지만 거리에 활기를 부여하며 아프리카의 도시 문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셰이크 은디아예 특유의 화법이 담긴 근작들은 독립 이후 서아프리카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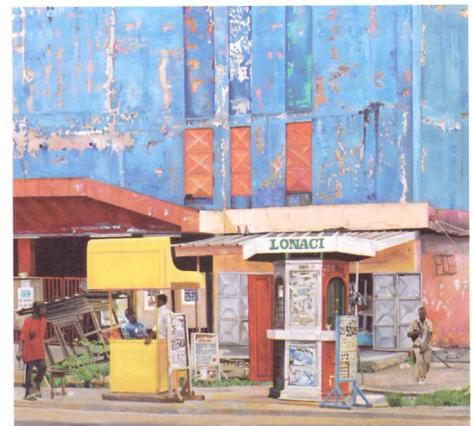




Cheikh Ndiaye, 'Coumba Castel', 101.5x103cm, oil on linen canvas, 2019.



Cheikh Ndiaye, 'Garage', 101.5x108cm, oil on linen canvas, 2019.



Cheikh Ndiaye, 'Cinéma Liberté Adjamé', Abidjan, Cote d'Ivoire, 152.5x161cm, oil on linen canvas, 2019.

누구나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대에 회화는 기록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닐까.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사용하는 셰이크 은디아예는 밝고 강렬한 색감, 섬세한 질감 표현을 통해 보다 생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서아프리카의 일상을 재현한다. 특히 건물의 표면을 자세히 묘사하는 점이 독특하다. '시네마 리베르테 아드자르Cinéma Liberté Adjamé'에서 건물은 가장 뒤편에 놓여 있지만 칠이 벗겨진 외벽이 생생하게 표현됐다. '시네마 ABC Cinema ABC'의 건물은 조적 벽이 드러난 상태고, 군데군데 반쯤 뜯긴 채 붙어 있는 포스터가 인상적이다. 건설용 가림막을 묘사한 작품을 통해서도 다카르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필 수 있다. '코움바 카스텔Coumba Castel'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을 감싼 천이 눈에 띈다. 옷감을 만드는 저렴한 원단을 가림막으로 사용한 것인데, 색감이 화려해 한국 건설 현장의 부직포와는 대비된다. 낯선 듯 익숙한 거리 풍경을 통해 개인, 건물,

도시의 관계를 유추하는 재미도 선사한다. 자동차 수리 센터 건물 벽에 남겨 놓은 번호가 인상적인 '차고 Garage', 극장 앞 포장마차에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이 살짝 엿보이는 '테이Tei'(오늘)는 어느 도시의 골목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건물과 거리는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뜯겨나갔지만 잘 살펴보면 생생한 쓰임의 흔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카르 주민의 일상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상상해볼 수 있다. 전시장은 1층과 2층으로 나뉜다. 2층 벽 한가운데에는 인근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큰 창이 나 있는데, 셰이크 은디아예의 작품으로부터 한두 발짝 떨어진 곳이다. 성북동의 가파른 골목을 따라 늘어선 크고 작은 건물이 창의 프레임을 통해 한 점의 그림처럼 보인다. 세네갈로부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경관이 기록으로서 캔버스에 담긴 서아프리카 도시의 일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hoons920@daum.net